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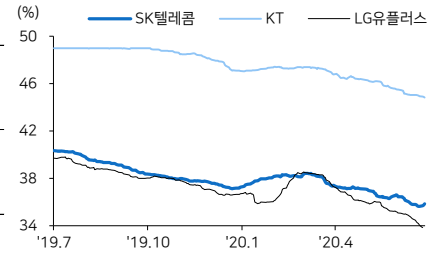


2020.7.6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0.8	-1.4	20.1	-0.1	15.6	15.6	0.9	0.9	2.1	2.1
통신업종	3.9	-3.1	12.0	-6.6	11.1	11.1	0.6	0.6	4.3	4.3
SK텔레콤	6.0	-1.1	20.8	-5.6	12.4	8.3	0.7	0.7	4.6	4.7
KT	2.1	-4.3	21.6	-9.0	9.0	7.6	0.4	0.4	4.7	4.8
LG유플러스	-0.4	-7.5	9.3	-10.9	10.3	9.1	0.7	0.7	3.3	3.5
AT&T	1.2	-8.2	9.5	-23.0	9.4	9.0	1.1	1.1	6.9	6.9
Verizon	0.9	-5.1	0.2	-9.3	11.6	11.2	3.4	3.0	4.5	4.6
T-Mobile	-3.8	5.0	29.6	35.9	45.4	36.0	2.2	2.1	0.0	0.0
NTT Docomo	-0.8	-1.0	-8.4	-4.9	15.8	15.6	1.8	1.8	4.1	4.3
KDDI	-1.0	-0.2	3.0	-1.9	11.7	11.3	1.7	1.6	3.6	3.8
Softbank	4.4	10.7	54.8	21.5	N/A	10.4	1.4	1.7	0.8	0.8
China Mobile	-0.6	0.0	-9.9	-15.1	9.5	9.3	0.9	0.9	6.1	6.3
China Unicom	-0.2	-4.1	-8.5	-39.2	10.0	8.6	0.4	0.4	4.0	4.6
China Telecom	0.0	-7.3	-9.6	-28.4	8.3	7.8	0.5	0.4	5.4	5.7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SKT 35.9% (+0.2%p WoW, -0.8%p MoM)
KT 44.0% (-0.2%p WoW, -0.8%p MoM)
LGU+ 33.4% (-0.6%p WoW, -1.8%p MoM)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을 반등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7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3.1%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MSCI 편입비중 확대 이슈로 SK텔레콤 주가가 상승하며 섹터 전체 수익률을 견인
5G 통신장비주들 역시 삼성전자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 지속
국내 기관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매수, KT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 순매수, KT,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8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통신3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
5G 망 투자 부담, COVID-19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우려 대비 과징금 규모 크지 않을 전망
3Q20 내에 삼성전자의 미국 5G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
서진시스템, RFHIC 등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밸류체인 내 통신장비주들에 대한 매수 전략 추천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9	30	1	2	3	4
5	6	7	8 방통위,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발표	9	10	11

3 주간 뉴스

▶ 5G 첫 불법보조금 제재 내주 결론?

(연합뉴스)

- 지난해 4~8월 5G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이 이달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 추가 검토를 위해 8일로 지연.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도 존재. 제재 수위도 불확실
- 일각에서는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을 예상하는 등 부정적 예상이었으나 검토 이후 분위가 반전
- ⇒ 지난달 말부터 결론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아 방통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가능성 존재
- ⇒ 5G 투자 필요성 및 COVID-19로 인한 피해 감안 시 시장 우려 대비하여 과징금 수준 낮을 전망

▶ '화웨이' 배제 인도, 5G 테스트에 '삼성' 초청

(ZDNet Korea)

- 인도가 중국 장비 배제한 이후 5G 테스트에 NEC, 삼성전자 등을 초청. 일부 중국 업체 사용금지
- 국산 장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미국, 유럽 회사가 5G 파트너로 선정 예정
- 인영 통신사의 경우 중국 친화적이었으나 최근 중국과 인도 양국의 국경 분쟁으로 분위가 급변
- ⇒ 최근 인도-중국 국경 분쟁은 삼성전자 수주 가능성 높이는 요인. 삼성은 인도 시장 적극 공략 중
- ⇒ 한편, 미 FCC는 화웨이와 ZTE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제재를 공식화

▶ 삼성전자, 노키아 턴질 추격...화웨이 미제재에도 점유율 상승

(전자신문)

- 델로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년 1분기 5G 통신장비 점유율 13.2%(+2.8%p QoQ) 기록
- 화웨이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35.7%(+0.4%p) 기록. 중국 시장 점유율은 동 기간 5%p 이상 상승
- 2위 에릭슨은 24.8%(+1%p), 노키아는 15.8%(-4.5%p), ZTE는 9.3%(-0.9%p)를 각각 기록
- ⇒ 중국 시장에서 노키아, ZTE 점유율 감소분을 화웨이가 흡수. 중국과 아시아에서 피해분을 상쇄
- ⇒ 중국 의존도 낮고 미국, 일본을 위주로 진행하는 삼성은 하반기 점유율 상승 가능성 높은 상황

▶ 20대 국회 폐기된 '보편요금제' 부활...과기정통부 재발의

(아이뉴스24)

- 30일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
-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 마련
-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이미 출시한 바 있다는 면에서 재추진에 대해 우려
- ⇒ 5G 투자비 등을 감안했을 때 근시일 내 5G 보편요금제 출시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
- ⇒ 요금 인가제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요금제 변경을 강요할 명분도 낮은 상황

▶ 中 SA방식 '진짜 5G' 구축 속도넢다

(ZDNet Korea)

- 중국 통신사 차이나유니콤은 베이징에서 5G SA 테스트에 착수. 기존 가입자 대상 공개 테스트
- 이미 차이나유니콤은 차이나텔레콤과 손잡고 5G SA 무선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추진하는 상황
- 차이나모바일도 올해 4분기에 SA 상용화를 실현 목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SA 장비 구매
- ⇒ 올해 중국 시장에서 전면적인 SA 전환으로의 이룰 전망.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검증 완료 단계
- ⇒ SA 전환 이후 네트워크슬라이싱 등 기술 활용하여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 기대

▶ 매각 작업 속도내는 현대HCN... 주총서 분할계획 승인

(디지털타임스)

- 현대HCN은 지난 26일 임시 주총을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 건을 의결. 분할기일은 11월 1일
- 신설되는 현대HCN은 방송 통신 사업부문 및 B2B, ICT 부문, 현대퓨처넷은 나머지 사업을 담당
- 현대HCN 예비 입찰에 참여한 통신 3사는 15일까지인 본입찰 기한에 맞춰 인수계획서 제출 예정
- ⇒ 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의견을 보이는 만큼 M&A 승인 작업도 순조로이 진행될 전망
- ⇒ 현대HCN 매각 대가는 약 6,000억원으로 추정. 매물이 많아 경쟁 강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한국	SK텔레콤	221,000	14.9	15.3	16.1	1.0	1.2	1.2	1.8	4.5	4.7	5.1	4.9	6.1	8.8
	KT	24,200	5.3	20.4	21.0	1.0	1.1	0.6	0.7	4.2	4.3	2.7	2.6	5.1	5.8
	LG유플러스	12,300	4.5	11.4	11.8	0.7	0.7	0.4	0.5	2.6	2.8	3.5	3.4	7.2	7.9
미국	AT&T	30.1	214.3	170.6	173.5	34.9	35.9	23.1	23.2	56.1	57.4	6.9	6.7	11.6	11.8
	Verizon	54.8	226.7	127.3	131.8	29.1	31.1	18.9	20.2	46.5	47.9	7.3	7.1	29.7	27.8
	T-Mobile	106	131.6	65.4	73.1	7.2	8.2	2.4	3.1	20.0	21.9	8.0	7.3	6.4	6.4
일본	NTT Docomo	2,889.5	86.8	43.4	42.8	8.0	8.0	5.5	5.5	13.6	13.5	6.3	6.4	11.2	11.3
	KDDI	3,192	68.4	48.6	49.0	9.7	9.7	5.9	6.0	15.7	16.5	5.3	5.1	14.9	14.4
	Softbank	5,778	112.3	57.1	60.9	-12.6	7.1	-7.1	9.0	5.6	16.6	40.9	13.8	-11.3	12.7
중국	China Mobile	54.7	144.4	107.1	111.8	16.1	16.5	15.3	15.9	41.2	42.2	2.3	2.3	9.6	9.6
	China Unicom	4.4	17.5	41.9	43.6	1.8	2.1	1.7	2.0	13.5	14.0	1.5	1.4	3.9	4.4
	China Telecom	2.3	23.7	54.6	56.7	4.0	4.2	2.9	3.1	16.8	17.3	2.2	2.2	5.7	5.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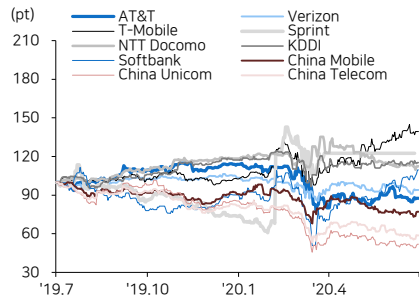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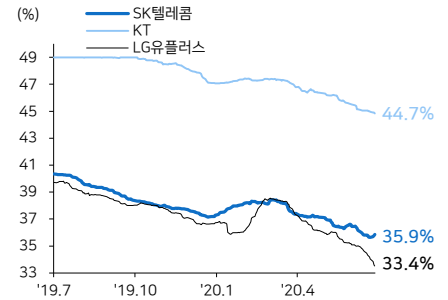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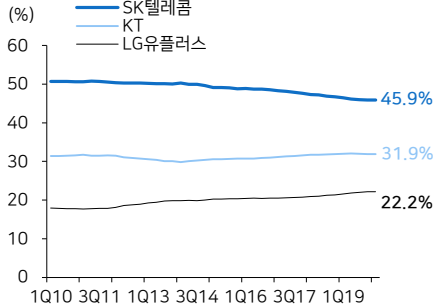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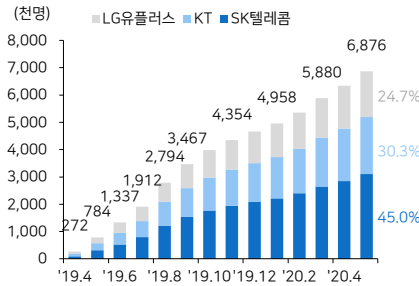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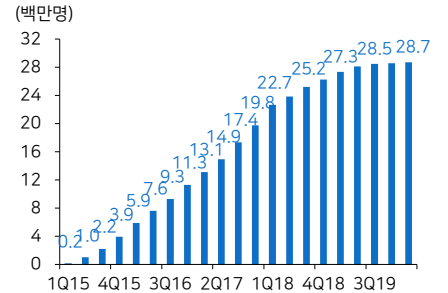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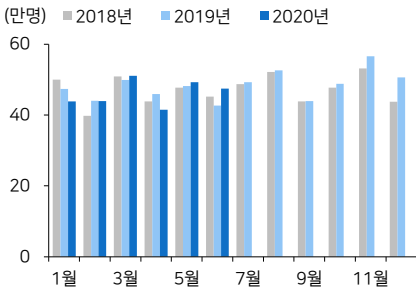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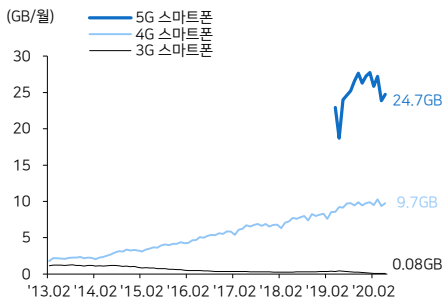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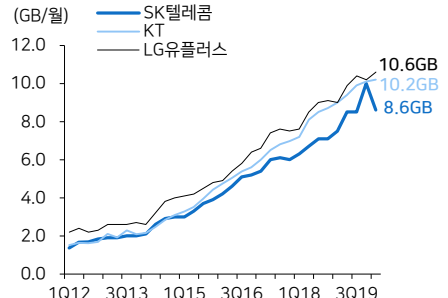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